

다니엘서 4장 27절의 번역에 관한 연구

배정훈*

1. 서론

다니엘 4장 27절은 칼뱅이 가톨릭교회가 성례로 채택한 고해 제도를 비판할 때 사용한 본문 중의 하나이다.¹⁾ 칼뱅은 가톨릭교회가 채택한 고해 제도의 요소인 마음의 통회, 입의 고백, 그리고 행위의 보속을 비판한다. 특히나 행위의 보속은 회개를 왜곡시킨다고 이해한다. 가톨릭의 교리는 죄를 대죄와 소죄로 나누고, 하나님의 자비로 죄과가 사해진 이후에도 지불해야 할 형벌이 남기 때문에 죄 사함을 위해서 보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²⁾ 가톨릭 교회는 이에 대한 증거 본문으로 다니엘서 4장 27절을 들고, 이 본문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구제함으로써 죄를 구속하도록 권고했다.”고 이해한다. 이에 대하여 칼뱅은 강조한다. “다니엘은 이로써 왕의 의와 자비가 하나님의 용서이며 형벌들에 대한 구속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대속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계되었다.”³⁾ 우리는 이 논쟁을 통하여 이 본문이 행위의 보속을 다루는지 아닌지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본문임을

*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 이 논문은 장신대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된 논문임을 밝힙니다.

1) 존 칼빈, 『라틴어 직역 기독교 강요』, 문병호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434-524.

2) Ibid., 444.

3) Ibid., 500-512. 더 자세한 본문에 대한 칼뱅의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존 칼빈, 『에스겔, 다니엘』,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 위원회 역 (서울: 성서원, 2001), 278-282.

알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이 본문에 대한 논쟁점을 확인하고,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쟁은 이 본문에 대한 번역들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피고, 다니엘서 2:5장의 문맥에 따라 본문을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문의 단어 연구: 프루크(פְּרוּק)와 치드카(חֲדָקָה)

『개역개정』은 다니엘서 4장 27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아람어로 이루어진 이 본문에서 두 개의 중요 단어에 대한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니엘서 4장 27절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다음 구절이다. “공의(치드카/חֲדָקָה)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프루크/פְּרוּק).” 이에 대한 번역들을 확인해 보자.⁴⁾

LXX (Rahlfs의 칠십인역 편집본)

περὶ τῶν ἀμαρτιῶν σου καὶ πάσας τὰς ἀδικίας σου ἐν ἐλεημοσύναις λύτρωσαι (당신의 죄와 당신의 모든 불의에 관하여는 자선으로 사하십시오).

Vul (Latin Vulgate)

peccata tua elemosynis redime (자선으로 당신의 죄를 사하십시오).

TNK (JPS Tanakh)

Redeem your sins by beneficence (자선으로 당신의 죄를 사하십시오).

4) K. Elliger, ed.,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Stuttgart: Deutsche Bibelstiftung, 1977); Alfred Rahlfs ed., *Septuagint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79). NRSV, REB, NAB, NJB 등은 다음에 나오는 번역들을 참조하였다. *The Complete Parallel Bib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NAB (New American Bible)

Atoned for your sins by good deeds (선행으로 당신의 죄를 사하십시오).

REB (Revised English Bible)

Let charitable deeds replace your sins (당신의 자선 행위로 당신의 죄를 제거하십시오).

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Atoned for your sins with righteousness (의로 당신의 죄를 사하십시오).

NJB (New Jerusalem Bible)

By upright actions break with your sins (바른 행동으로 당신의 죄를 깨뜨리십시오.)

KJV (King James Version)

Break off thy sins by righteousness (의로 당신의 죄를 깨뜨리십시오).

본문에서 중요한 아람어 단어인 프루크(פרוק)와 베치드카(בְּצִדְקָא)에 대한 번역을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각 번역에는 본문 자체에 대한 번역보다는 해석하는 공동체의 신학적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되어 있다. 아람어 브치드카(בְּצִדְקָא)에 대한 번역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개인적인 자선을 암시하는 번역과 공의를 강조하는 번역이다. 칠십인역, 라틴 별게이트, 유대교 성경, 카톨릭 성경, 그리고 한국의 『공동』에서는 공의보다는 자선을 강조하여 번역한다.⁵⁾ 이외에도 REB(Revised English Bible)도 자선으로 번역한다. 개신교

5) “OG (Old Greek), Θ (Theodotion), Syr (시리아어), VG (Vulgate)은 모두 자선의 의미로 해석한다. 후기 히브리어에서는 이러한 의미가 담기지만 성서 히브리어 시대에는 ‘공의’라는 의미가 더 일반적이다. 가난한 자를 공휼히 여긴다는 말이 자선과 유사하지만, 왕의 경우에 이 단어를 자선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너무 좁은 적용이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왕의 편에서 변화된 행동 안에 담긴 태도의 변화이다.” Earnest C. Lucas, *Daniel* (Apollo Old Testament; Apollos: Leicester,

<표 1>

아람어 본문(BHS)	베치드카(ܒܥܝܕܟܐ)	프루크(ܦܪܘܟܐ)
칠십인역(LXX)	자선으로 (ἐν ἐλεημοσύναις)	사하다(λύτρωσαι)
Vul(Latin Vulgate)	자선으로(elemosynis)	사하다(redime)
JPS(Jewish Publication Society OT)	by beneficence	Redeem
NAB(The New American Bible)	by good deeds	Atonement for
REB(Revised English Bible)	charitable deeds	replace
NRS(New Revised Standard Version)	with righteousness	Atonement for
NJB(The New Jerusalem Bible)	By upright actions	break with
KJV(King James)	by righteousness	break off
『개역개정』	공의	사하다
『개역』	공의	속하다
『공동』	선을 베풀다	(죄를) 면하다

계통의 번역은(NRS, NJB, KJB, 개역개정, 개역한글) 주로 공의(righteousness)로 번역하였다. 아람어 프루크(ܦܪܘܟܐ)에 대한 번역도 크게 둘로 나뉘는데 죄를 사하다(redeem 또는 atone for)라는 뜻과 죄를 없애다(replace, break with, break off)라는 뜻의 번역이다. 칠십인역, 유대 성경, 카톨릭 성경이 주로 사하다(redeem)의 뜻으로 번역하고, 개신교의 많은 번역은 ‘죄를 없애다’라는 뜻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NRS(New Revised Standard Version) 와 『개역』은 ‘사하다’라고 번역하였다.

본문의 번역은 아람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뜻이 바뀌는데, 아마도 번역 당시에 개인의 자선을 강조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⁶⁾ 구약성서의 전통에서 보면 프루크(ܦܪܘܟܐ)는 ‘죄를 제거하다’는

England, 2002), 113. “체데크는 공정한 분배로서 자선을 의미하기도 한다(토빗 12:9; 14:11).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에는 옛 의미가 더 적절하다.” John E. Goldingay, *Daniel*, WBC 30 (Word Books: Dallas, Texas, 1989), 81; 에드워드 영, 『다니엘서 주석』, 정일오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152.

6) “다니엘의 권고는 데오도션(Theodotion), 라틴 별게이트(the Vulgate), 그리고 많은 교부들(Church Fathers)과 랍비들, 그리고 후대의 유대인들에 의하여 행위에 의한 성화 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잘못된 것이다.”

의미이며, 치드카(חֲדָקָה)의 히브리어인 츠다카(חֲדָקָה)는 왕이 이루어야 할 ‘공의’이다. 그러나 칠십인역에서 프루크(פְּרוּק)는 ‘사하다’로 해석하고 치드카(חֲדָקָה)는 ‘자선’으로 해석하면서, 이 본문을 ‘자선을 통해 속죄하다.’로 해석하게 된다. 그러나 아람어의 원래 의미는 칠십인역과 동일하다기보다는 칠십인역에서 일정한 해석이 반영되었다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하다. 이것을 위해서 아람어 본문에 있는 두 개의 아람어 단어를 살펴보기로 하자.

프루크(פְּרוּק)를 구속하다(redeem)로 번역하는 것은 아람어 본문의 문맥에서라기보다는 칠십인역(뤼트로사이/λύτρωσαι 원형은 λυτρόομαι)과 라틴역(redime)을 통하여 결정되었다. 칠십인역에서 프루크(פְּרוּק)를 번역한 뤼트로사이는 히브리어 프루크의 번역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목적어는 죄이다. 그런데 뤼트로사이라는 단어는 구약성서(칠십인역)에서 ‘속량하다, 또는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속량하고 구원해야 할 목적어는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⁷⁾ 우리⁸⁾나 나⁹⁾ 등임으로 본문의 문맥과 다르다.¹⁰⁾

실제로 칠십인역은 프루크(פְּרוּק)를 ‘사하다, 속하다’라는 뜻의 카파르(כַּפַּר)나 파다(פָּדָה)를 번역하고 있는 셈이다. 카파르(כַּפַּר)라는 동사는¹¹⁾ 하나님과 관련하여 나올 때 하나님은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로

C. F. Keil & F. Delitzsch, *Ezekiel, Daniel, IX.*,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Eerdmans: Grand Rapids, Michigan, 1976), 156.

7) 칠십인역 시편 24:22(한글 25:22).

8) 칠십인역 시편 43:27(한글 44:26).

9) 칠십인역 시편 25:11(한글 26:11); 58:2(한글 59:2); 118:134(한글 119:134); 118:154(한글 119:154).

10) “타르굽에서 파라크(פָּרַק)라는 동사는 구속하고, 만물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들을 대속하는 뜻의 가알(גָּאַל) 또는 파다(פָּדָה)의 뜻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죄는 대속할만한 대상이 아니기에 이 동사의 목적어로 사용될 수 없다. 파라크(פָּרַק)라는 동사는 오직 죄를 제거한다는 의미이다.” Keil & Delitzsch, *Ezekiel, Daniel*, 156. 골딩게이(Goldingay)도 같은 견해이다. Goldingay, *Daniel*, 81; 에드워드 영, 『다니엘서 주석』, 152. “왕을 묶는 대상이 죄이므로 의미는 ‘깨뜨리다가 되어야 한다.’”

Earnest C. Lucas, *Daniel*, 101.

나온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죄를 정화하거나 덮음으로써 죄를 속하신다. 카파르의 역어로서 칠십인역에서는 주로 힐라스코마이(ἱλάσκομαι)로 번역되며, 이 단어의 일차적인 의미는 ‘속죄하다’이다. 구약성서에서 카파르(כָּפַר)라는 단어는 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죄악을 용서하며(to atone for iniquity, NRSV, 단 9:24).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כָּפַר/ἱλάσκομαι) (시 65:3)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시므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כָּפַר/ἱλάσκομαι) (시 78:38).

이와 같이 아람어 본문에 나오는 프루크(פָּרַק)를 칠십인역에서와 같이 구속하다(뤼트로사이/λύτρωσαι/redeem)로 번역하는 것은 아람어에 대한 바른 번역이 아니고, 번역자가 프루크를 카파르(כָּפַר)의 뜻으로 번역하면서 당대의 공동체의 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프루크라는 단어는¹²⁾ 히브리어 Qal 형태에서 꺾뜨리다(break off)는 뜻을 갖는다.¹³⁾ 여러 용례에서 나타나는 대로 이러한 뜻을 적용한다면

11) 카파르(כָּפַר)라는 동사는 구약성서에서 91번 나오고, 60번이 희생 제사와 관련이 있다. 구약성서에서 희생제도 전체는 속죄 개념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T. C. Vriezen, *An Outline of Old Testament theology* (Oxford: Basil Blackwell, 1954), 261.

12) 파라크(פָּרַק)는 동부 또는 서부 셈어에서 나타난다. 아카드어에서는 pāraqu(나누다), 우가리트어로는 pqr. 중세 히브리어로는 pāraq(나누다). 아람어(prq)의 뜻으로는 파괴하다, 꺾어 열다 등의 뜻이다. 유대 아람어로는 p'raq(구속하다, 찢어 버리다)의 뜻을 갖는다. G. Johannes Botterweck, John T. Willis, tran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Eerdmans: Grand Rapids, 1977). 111.

13) 이 단어는 울무와 같은 목적어를 가질 때 ‘꺾뜨리다’라는 뜻을 갖는다.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파라크/פָּרַק) 하였더라.” (창 27:40). 이 본문에서는 자유를 획득하는 행위로 형제의 울무를 꺾는데, 이 행동은 폭력적인 자유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 단어는 또한 사람을 목적으로 하거나 ~로부터(מן/מִן)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함이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파라크/פָּרַק)가 없나이다.”(에 5:8);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파라크/פָּרַק)에게 감사하라.”(시 136:24) 애가에서는 계

본문에서 죄는 깨뜨려야 할 대상이 된다.¹⁴⁾ 그러므로 아람어 본문에서 프루크(ܦܪܘܩ)라는 단어는 제사장적인 언어인 ‘속하다’보다는 예언적인 전승에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지은 죄를 제사와 같은 속죄 수단을 통하여 스스로 속하는 것이 아니기에 ‘속하다’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못하다.¹⁵⁾ 그래서 칼뱅은 강조하기를 이 단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되었다고 명시한다. 이 단어는 임박한 심판 앞에서 죄로부터 돌이킴을 통하여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재앙이 선포되고 재앙까지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죄로부터 돌이킨다면 심판이 면제되는 것이다. 구약성서에서는 이것을 회개라고 표현하였고, 재앙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¹⁶⁾ 심판은 선포되었다. 아직도 심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왕이 회개의 증거를 보여준다면 왕은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있다.¹⁷⁾ 구약성

속적으로 포로의 상황 속에서 바벨론 관리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희망이 없는 상황을 강조하고, 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준다. Botterweck,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113.

- 14) HALOT(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에서도 이 단어의 뜻을 제거하다(remove) 또는 없애다(wipe away)로 번역한다. HALOT V, 1959.
- 15) “아람어 본문에서 왕은 속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라고 요청받지 않았다. 단지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공의와 긍휼을 베풀라고 요청받았다.” Paul L. Redditt, *Daniel,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Sheffield: Sheffield Press, 1999), 83. 칼뱅은 단어의 해석을 문제시하지 않고 속하다는 뜻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을 말한다. “공덕 행위가 죄나 실수를 보상하는 것처럼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속해진다는 것은 아니다.” 존 칼빈, 『에스겔, 다니엘』, 280-281.
- 16) 이러한 회개의 촉구 본문은 다음과 같다. 열왕기하 17:3; 역대하 30:6-9; 느헤미야 1:8-9; 이사야 1:19-20; 55:6-7; 예레미야 3:12-13, 14, 22; 4:1-2, 3-4, 14; 7:3-7; 15:19; 18:11; 22:3-5; 25:5-6; 26:13; 31:21-22; 35:15; 에스겔 18:30-32; 요엘 2:12-13; 아모스 5:4-5, 6-7, 14-15; 요나 3:7-9; 스바냐 2:1-3; 말라기 3:7. 랄프 스미스, 『구약신학: 그 역사, 방법론, 메시지』, 박문재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363.
- 17)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의 행위에 따라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되고, 위협된 심판은 회개에 의해서만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방식의 심판 선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적용되었다.” Keil & Delitzsch, *Ezekiel, Daniel*, 156.

서의 많은 본문이 이러한 예를 보여준다(렘 26:13; 겔 18:30; 슥 2:3; 은 3:8-9).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렘 26:13).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최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겔 18:30).

여호와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와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슥 2:3).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은 3:8-9)

회개를 촉구하는 본문들은 모두 재앙이 임박하였음을 선포하고, 회개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회개를 보여주는 방법은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렘 26:13), “공의와 겸손을 구하거나”(슥 2:3), “강포에서 떠나는 것”이다(슥 2:3). 이 모든 행동은 같은 회개의 방법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다니엘서 4장 27절에서 왕에게 공의를 요청하는 장면은 구약성서에서 전형적으로 회개를 요구하는 장면과 유사하다.

프루크(פְּרוּק)의 번역은 뒤에 있는 치드카(חִדְקָא)라는 단어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치드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츠다카(צְדָקָא)인데,¹⁸⁾

18) 츠다카(צְדָקָא)는 체데크(צְדֵק)와는 구별된다. 체데크는 집합적인 의미이고, 츠다카

구약성서에서 츠다카를 하나님의 츠다카,¹⁹⁾ 통치자의 츠다카,²⁰⁾ 그리고 인간의 기본 윤리로서 사용한다.²¹⁾ 이 중에서 본문에서 츠다카는 왕을 통해 이루는 공의나 정의를 뜻한다.²²⁾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지상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을 정의(צדקָה)와 공의(קְדוּשָׁה)로 다스리는 존재로 이해한다.²³⁾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צדקָה)와 공의(קְדוּשָׁה)를 행할새(삼하 8:15; 대상 18:14 참조).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צדקָה)와 공의(קְדוּשָׁה)를 행하게 하셨도다(왕상 10:9; 대하 9:8).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왕은 다윗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고(삼하 8장), 다윗이 왕으로서 자리 잡을 때 잊지 않는

- 는 개별적인 정의의 행위를 말한다. 체데크는 바른 질서를 언급한다면, 츠다카는 질서를 추구하는 적절한 행위를 가리킨다. 후대에 와서 체데크가 츠다카의 의미를 갖게 되고 츠다카는 더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키게 된다. HALOT III, 1004-1005.
- 19) 하나님의 츠다카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하나님의 츠다카는 개인이나 집단이 겪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다. 2) 하나님의 츠다카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와 관련된다. 3) 하나님의 츠다카는 자연과 인간에게 생명과 풍요를 선사한다. 배희숙, “구약성경적 공정한 사회,” 「구약논단」 17:3 (2011. 9. 30), 59.
- 20) 이스라엘에서 왕은 미쉬파트와 츠다카의 수호자이다. 신의 지상의 대리자인 왕은 지상에 공평과 의를 구현하고 유지하는 일을 말씀으로써 신의 공의에 참여한다. 배희숙, “구약성경적 공정한 사회,” 60.
- 21) 츠다카는 서로가 자신의 위치에 맞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상호 신뢰와 충성을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에게 기대되는 요구들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츠다카는 개인과 공동체의 사람을 가능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며 사람의 완성도를 결정해주는 기준이다. 배희숙, “구약성경적 공정한 사회,” 68.
- 22) 다니엘은 왕에게 독재자의 불의가 아닌 통치자의 중요한 덕으로서 공의를 실행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Keil & Delitzsch, *Ezekiel, Daniel*, 156.
- 23) Goldingay, *Daniel*, 95.

것은 다윗이 백성들을 위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왕의 본분을 다한다는 것이다(삼하 8장). 또한 솔로몬의 통치는 다윗 왕을 이어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한다는 것이 왕의 본분이라는 것을 스바의 여왕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신다(왕상 10장).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טִבְרִים)와 공의(קִדְמוּת)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사 9:6)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טִבְרִים)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קִדְמוּת)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קִדְמוּת)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טִבְרִים)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מַלְּאִמָּה)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시 72:1-3).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מַלְּאִמָּה)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잠 16:12).

이어서 이사야서에서는 이상적인 메시아의 기능은 바로 왕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바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다. 이상적인 왕인 솔로몬의 시편은 시편 72편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반복해서 언급하면서 이상적인 왕의 역할은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잠언에서도 왕의 바른 직책을 공의와 관련하여 말한다.

구약성서에서는 츠다카가 자선으로 번역된 적이 없지만,²⁴⁾ 구약

24) 츠다카는 구약성서 어디에도 자선이라는 의미를 가진 적이 없다. Keil & Delitzsch, *Ezekiel, Daniel*, 156. “이 단어가 구약성서에서 자선을 의미한 적이 없다. 아람어 문장에서도 그러한 의미는 아니다.” Donald E. Gowan, *Daniel* (Nashville: Abingdon Press, 2001), 80. 명사는 츠드카는 자선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지만 (NEB), 이 단어가 왕을 가리킬 때는 구약성서에서 더 오래되고 더 넓은 의미인 공의 또는 정의가 적절하다. Lucas, *Daniel*, 101. John J. Collins, *Daniel: A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1993), 230.

후기 시대에 이 본문은 원래 구약성서의 용례와는 다르게 번역이 된다. 본문에 등장하는 치드카(צדקה)를 칠십인역으로 번역할 때 이 단어를 구약성서적인 문맥으로 번역한다면 디카이오시네(δικαιοσύνη)이지만, 저자는 ‘자선으로’라는 뜻의 엘레에모시나이스(ἐλεημοσύνας)로 번역함으로써 왕이 공적으로 행하는 공의보다는 개인적으로 행하는 자선의 의미로 변형하였다. 이후 카톨릭과 유대교 계통의 공동체는 이 번역을 따르게 된다. 이 본문이 자선으로 번역되는 것은 아람어 본문의 뜻이라기보다는 후기 시대의 상황을 적용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문의 단어 연구에서 보여주는 결론은 두 가지이다. 첫째로, 다니엘서 4장 27절에서 프루크(פֶּרֶק)라는 표현은 제사장 문서에서 사용되는 ‘사하다’라는 뜻보다는 예언자 전승에서 등장하는 용례대로 회개의 증거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없애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둘째로, 치드카라는 단어 연구에서 다니엘서 이전의 구약성서에서는 이 단어는 공의로 번역되고, 칠십인역을 포함하여 후대에 자선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아람어 본문에서는 공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왕이기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는 이방 왕에게도 같은 회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질문이 생긴다. 비록 용례는 유사하지만 다니엘서의 문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니엘서 2-5

가톨릭 학자인 하트만과 딜레라는 공의가 아니라 자선으로 번역한다. “히브리어 체데카는 공의, 정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의로운 행위로도 번역할 수 있다 (사 33:15; 64:5). 후기 유대교에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자선이 강조되면서(토빗 4:7-11; 12:8 이하, 집회서 3:29-4:10; 29:8-13) 히브리어 체데크와 상응하는 아람어 치드카, 그리고 그리스어 디카이오시네는 빈번히 자선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마 6:1; 고후 9:9).” 하트만(L. E. Hartman)과 A. A. Di Lella, *The Book of Daniel*, AB (Doubleday & Company, INC: Garden City, New York, 1983), 173. 앤더슨은 하트만을 비판한다. “이 본문이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히브리 성경이나 후기 유대교 사상에서 구원이 획득할 수 있는 것에 의존한다는 진술은 없다.” Robert A. Anderson, *Signs and Wonders* (Grand Rapids, MI: Eerdmann, 1984), 47.

장의 문맥을 검토하기로 한다.

3. 다니엘서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의 죄

다니엘서 4장 27절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의 죄를 두 가지 방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다니엘서 2장-5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죄를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4장 문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3.1. 다니엘서 2-5장의 문맥에서²⁵⁾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권세를 부여받은 이방 왕이다. 왕에 대한 다니엘서의 중요한 주제는 곧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게 하시는 분”(단 2:21)이라는 것이다. 왕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유대인들의 유일신으로 회심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방 왕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를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인정할 뿐이다. 다니엘서에서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체성을 지닌 왕이 되는 것이다.²⁶⁾ 바른

25) 이 부분은 다음 글을 참조하였다. 배정훈, “다니엘서 1-6장에 나타난 이방 왕 (Gentile Monarch)의 고백,” 『신학과 문화』 17 (2008. 6), 47-62.

26) 특히 3:26에서 왕은 세 친구들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다. 이러한 호칭은 구약에서 하나님 대신 사용된 엘 엘리온(El Elyon)을 기억나게 한다. 4장과 7장 25절에 등장하는 이 호칭은 고대에 하나님을 부르던 이름이다(창 14:18-20, 22). 이는 곧 다원 종교에서 가장 높은 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왕이 회심했다기보다는 유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말이다. Redditt, *Daniel*, 72.

왕의 정체성을 지니는 것은 교만을 제거하고 겸손하며, 이스라엘 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공의를 행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²⁷⁾

이방 왕으로서 왕의 정체성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2장에서부터 시작된다.²⁸⁾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세상을 정복하고 영원한 왕국을 세웠다고 자부하였으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단 1:1-2). 그러므로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을 가르친다. 왕이 세운 바벨론 왕국이 영원하지 않고 멸망될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할 것을 보여주신다. 2장에서 왕은 모든 사건이 끝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2장에서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드러내시고, 이 계시를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가 유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알고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서 겸손할 것을 요청한다.

3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왕의 정체성이 2장보다 조금 더 발전한다.²⁹⁾ 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 제국의 유한성을 통보받은 느부갓네살 왕은 겸손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네 금속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왕국 일체를 상징하는 금으로 이루어진 금신상을 만들고 제국의 모든 백성이 그 앞에 절함으로 충성을 맹세하게 한다. 그리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세 친구들을 향하여 말한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

27) 언약 관계에 있지 않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제의가 아닌, 도덕적인 도전이다.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바른 공의를 행할 것을 요구한다. Lucas, *Daniel*, 117-118.

28) 2장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배정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설교를 위한 다니엘서 연구』(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7), 73-102.

29) 3장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하라. 배정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설교를 위한 다니엘서 연구』, 104-123.

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단 3:15). 이 선포에 대항하여 하나님은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를 구함으로 응답하였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단 3:28-29)에 의하면 세 친구가 행한 일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에게 절하지 아니한”(단 3:28) 것이다. 이에 응답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사 당신의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찬양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조서를 내린다.³⁰⁾ 이 조서를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에게 경솔히 말하였던³¹⁾ 자신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세 친구 앞에서 자신이 경솔하게 말했다가 세 친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기는 하였지만, 다른 벌을 받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사자를 목격하고 고백만을 행하는 것에 멈춘다.³²⁾ 다니엘에서 보여주는 왕에 대한 목표는 왕을 유대교로 회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다니엘서 3장의 결론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왕을 겸손하게 만들어 다시는 하나님께 경솔하게 말하지 못하게 만듦으로 이방 왕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다.

이 연속성 속에서 4장도 왕의 정체성을 점차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과정의 연속이다.³³⁾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30) 이방 왕은 이 조서를 통하여 자신의 영토에서 제의의 보호를 명령한 것이다. 이 조서는 에스라 6장 6-12절의 조서와 유사한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스 6:11). 다니엘서의 저자는 이러한 공적인 문서의 언어를 채용하고 있다. Collins, *Daniel*, 191.

31) NRSV에서 이 단어를 “신성 모독을 말하다(utter blasphemy).”로 번역한다. 샬롬(Shalom Paul)은 어근인 *šlb*은 아람어에서 죄를 짓는 말(sinful speech)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Redditt, *Daniel*, 72; Shalom Paul, “Dan 3:29-A Case Study of ‘Neglected’ Blasphemy,” *JNES* 42, 291-294, 291-293.

32) Peter Coxon, “Nebuchadnezzar’s Hermeneutical Dilemma,” *JOT* 66 (1995), 87-97.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 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단 4:37). 이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회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춘다.”는 것이다. 본문이 규정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죄는 바로 교만인 것이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하여 이 교만의 죄를 비판하고, 폐위와 포로를 통하여 겸손해지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³⁴⁾

4장에서 드러난 느부갓네살 왕의 죄는 5장에서 다시 드러난다.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기에 앞서 벨사살 왕의 선대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죄를 언급하는데, 이 죄에 대한 묘사는 4장의 관점과 유사하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므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단 5:18-21)

다니엘의 꿈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은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게 되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33) 4장과 5장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하라. 배정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설교를 위한 다니엘서 연구』, 125-157.

34) 배정훈, 『정경해석방법으로 바라본 묵시문학』 (과주: 한국학술정보, 2008), 208; 배정훈, “연대기로 읽는 다니엘서의 종말론,” 『구약논단』 19 (2013. 9), 331.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였다.”(단 5:20).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죄이다. 그리하여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폐위-포로-회복의 기간을 갖게 된다.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가 끝나는 시점은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달았을 때이다. 5장에서 언급된 느부갓네살 왕의 죄는 4장에서 드러난 대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것이다.³⁵⁾

결론적으로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느부갓네살 왕의 죄는 교만의 죄이다. 교만은 곧 우주의 왕으로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죄를 말한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겸손을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왕으로서 겸손을 요구받는 것이다. 교만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폐위와 포로를 통하여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음을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겸손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이방 왕들에게 요구하는 왕의 정체성이다.

3.2. 다니엘서 4장의 문맥에서

다니엘서 4장에서 말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죄는 무엇인가? 4장에서 전체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죄는 교만으로 이해한다.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사건을 고백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단 4:4). “편히 있음(שלום)”은 아무 걱정 없이 안락해 보이는 것이며, “평강함(라에난, רַעֲנַן)”은 특히 번성한 나무를 뜻하는 단어로(신 12:2; 렘 11:16), 왕이 최고의 업적을 성취하고 왕으로서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강력한 권세를 누림

35) 배정훈, 『정경해석방법으로 바라본 묵시문학』, 208-209.

으로 자족하고 자만한 상태를 말한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최고의 자리에서 더는 이를 것이 없고 올라갈 곳이 없어 자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문에서 비유되는 나무의 상태를 암시한다(단 4:10-13).³⁶⁾ 즉, 스스로 자신의 왕국이 완벽하다고 여기는 자만의 상태를 보여 주며, 동시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였다는 것은 꿈을 꾸기 이전의 완벽하다고 여기는 상황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충격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설명할 때 순찰자가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³⁷⁾

이는 순찰자들의(이린עֲרִינִי)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카디신קַדְשֵׁינֵינוּ)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단 4:17).

순찰자와 거룩한 자가³⁸⁾ 사람들이 깨닫도록 알려주려는 진리는 다음과 같다. 1)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다. 2) 하나님은 왕위를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이시다. 3) 하나님은 지극히 천한 자라도 왕위에 세우시는 분이시다. 즉, 이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 지상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분임을” 깨닫기 원하신다.

4장 25-26절에서 다니엘은 다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말한다.

36) C. L. Seow, *Daniel*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66.

37)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인다. 첫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나무 이야기이다(단 4:10-12). 두 번째 부분은 나무가 잘리고 그루터기만 남겨지고 이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이다(단 4:13-17).

38) 순찰자는 거룩한 자와 동의어로서 천상의 회원으로 여겨진다. 시편 89:7; 스가랴 14:5. 느부갓네살 왕에게 심판이 선고된 것이다. Seow, *Daniel*, 69.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의 그 루티기를 남겨 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단 4:25-26).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하는 경고이다.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 선포된 예언이 구체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성취되고, 이 심판이 어떻게 끝나며,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첫째로, 왕이 경험해야 하는 포로의 기간은 일곱 때이다. 둘째로, 일곱 때의 포로 기간이 끝난 후에 왕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왕위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셋째로, 왕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이 말은 순찰자가 말한 주제와 동일한데, 앞에서 이 일이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는 내용이라고 말했다고(단 4:17), 동시에 왕이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내용이다(4:25-26). 반대로 왕이 포로를 겪는 이유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아직까지 포로를 경험하지 않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왕위를 차지하고 임의로 다스린다고 생각하였다. 다니엘서는 왕으로서 마땅히 깨달아야 할 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것을 교만으로 정의한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 4장에서 제시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죄는 바로 교만이다.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위하여 다니엘은 왕이 어떻게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한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단 4:27)

이 본문은 왕이 자신의 죄를 사하는 제사적인 수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왕이 압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증거로 공의를 요청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다니엘서에서는 왕의 죄를 교만이라고만 표현하였다. 그런데 교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이 공의를 행해야 한다고 말할 때 왕이 공의를 행하지 않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즉, 왕이 불의의 죄를 범하였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다니엘은 예언자처럼 왕의 죄를 보여주면서, 만약 왕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예정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한다. 공의를 행하는 것은 죄를 속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체성을 보여줌으로 압박한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곧 그분이 맡기신 권세를 사용하여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 4장 27절은 느부갓네살 왕의 죄를 교만과 불의로 이해하고³⁹⁾ 느부갓네살 왕이 압박한 심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곧 불의를 멈추고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⁴⁰⁾ 더불어 본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서가 왕의 죄를 교만과 불의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왕을 위하여 예정된 회개를 위하여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39) “왕의 죄는 교만과 불의/무관심으로 특징지어진다.” Goldingay, *Daniel*, 97.

40) 칼빈은 말한다: “우리는 열매로 자신들의 회개를 입증해야 한다… 선지자는 죄를 속하소서, 끊어버리소서, 내던지소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은 공의를 행함으로 가능하다.” 존 칼빈, 『에스겔, 다니엘』, 279. 칼빈은 이 “사함”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통한 속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공의의 실천을 통하여 가능한 것임을 강조한다.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단 4:28-32).

우선 예언과 성취 사이의 기간을 1년 대신 “열두 달”이라고 표현함으로(4:29)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을 강조한다. 느부갓네살은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심판 직전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세를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경고를 무시한 교만의 극치에 오른 상태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성취라고 주장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챈다(단 4:30).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에게든지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교만을 드러낸다. 바벨론을 세운 것은 자신의 능력이고, 바벨론 성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동안 본문에서 추측하던 느부갓네살 왕의 죄인 교만이 적극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표현된 것이다. 이 발언의 문제는 무엇인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린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찾아왔다. 느부갓네살 왕의 자기 교만의 표현 이후에 왕의 폐위가 선포되고 포로의 기간이 정해진다. 왕의 포로의 기간은 왕의 깨달음이 올 때까지이다(단 4:32). 이 깨달음은 곧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임의로 그 권세를 누구에게나 주신다는 것이다. 이 깨달음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예언에서 반복해서 보여준 계시이다(단 4:17, 25-26).

이제 포로의 때가 지나고 회복의 때가 가까웠다. 느부갓네살 왕의 회복은 어떤 시나리오를 통하여 이루어졌는가? 다니엘 4장 34-35절에서 회복의 시작은 “기한이 차매”로 시작된다. 느부갓네살 왕의 깨달음이 먼저였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을 쳐다본다. 느부갓네살 왕의 총명이 돌아온 것은 “그 기한이 차매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였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영원하며, 당신의 권세를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섭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총명이 돌아온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고백한다. 왕은 자신의 신분이 원상복귀한 후에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이유를 밝힌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마지막 진술에서 우리는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을 엿본다. 느부갓네살 왕의 상태는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었다는 것이다. 즉, 다니엘서 4장에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는 교만이었고, 하나님은 이 교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폐위-포로-회복의 단계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⁴¹⁾

4. 결론

다니엘서 4장 27절은 자선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속하라는 본문이 아니다. 두 개의 단어인 프루크(פֶּרַק)와 치드카(חֲדָקָה)를 염두에 둘 때 이 본문은 다음과 같이 번역해야 한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없애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없애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단 4:27) 치드카(חֲדָקָה)는 후대에 칠십인역, 카톨릭, 유대교에

41) 김진양,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 찬양,” 『신학연구』 63 (2013. 12), 15-17.

서와 같이 자선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본문의 문맥에 적절하지 않다. 이는 구약성서에서 왕에게 요구되는 덕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왕이 아니라, 이방 왕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진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를 요청받는다. 예언자들의 경고 앞에서 재앙이 오기 전에 주어진 기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시로 왕이 공의를 행하기를 요청하는 것과 같다. 프루크(פְּרוּק)가 “사하다”라고 칠십인역에서 번역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단어를 칠십인역 번역자는 카파르처럼 “사하다”라고 번역함으로 실제로는 제사장적인 구속을 뜻하게 만들었다. 이 단어는 많은 용례를 따라 “죄를 없애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권고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질책이 아니다. 포로 시기에 세계를 다스리는 바벨론 왕에게 권세를 부여하시면서 왕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이다. 즉, 하나님은 왕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가 유다의 신인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기를 요청한다. 왕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며 왕을 폐하기도 하시는 분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박했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고백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왕은 이 권세를 빼앗겨 폐위-포로의 시기를 겪게 되는 것이다.

<주요어>

다니엘 4:27, 느부갓네살, 공의, 자선, 속하다, 제거하다.

<Key Words>

Daniel 4:27, Nebuchadnezzar, righteousness, good deeds, redeem, break off

* 접수일 2014년 2월 19일, 수정일 2014년 2월 20일, 게재 확정일 2014년 3월 5일

참고문헌

- 김진양,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 찬양,” 「신학연구」 63 (2013. 12), 7-31.
- 랠프 스미스, 『구약신학: 그 역사, 방법론, 메시지』, 박문재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 배정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설교를 위한 다니엘서 연구』,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7.
- 배정훈, 『정경해석방법으로 바라본 묵시문학』, 과주: 한국학술정보, 2008.
- 배정훈, “다니엘서 1-6장에 나타난 이방왕(Gentile Monarch)의 고백,” 「신학과 문화」 17 (2008. 6), 47-62.
- 배정훈, “연대기로 읽는 다니엘서의 종말론,” 「구약논단」 19 (2013. 9), 323-347.
- 에드워드 J. 영, 『다니엘서 주석』, 정일오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존 칼빈, 『라틴어 직역 기독교 강요』, 문병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 존 칼빈, 『에스겔, 다니엘』,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 위원회 역, 서울: 성서원, 2001.
- Anderson, Robert A., *Signs and Wonders*, Grand Rapids, MI: Eerdmans, 1984.
- Botterweck, G. Johannes, trans., *John T. Willi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Eerdmans: Grand Rapids, 1977.
- Collins, John, J., *Daniel: A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1993.
- Collins, J. J., ed., *The Book of Daniel: Composition and Reception*, Brill Academic Publisher, INC: Leiden, 2002.
- Fewell, D. N., *Circle of Sovereignty*, Nashville, TN: Abingdon, 1991.
- Ginsberg, Harold Louis, *Studies in the Book of Daniel, Texts and Studies of the Jewish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 14*, New York: Jewish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 1948.
- Goldingay, John E., *Daniel*, WBC 30, Dallas, Tex.: Word Books, 1989.
- Gowan, Donald E., *Daniel*, Nashville: Abingdon Press, 2001.
- Hartman, L. & Di Lella, A. A., *The Book of Daniel*, AB 23, Garden City, N. Y.: Doubleday, 1978.

- Heaton, E. W., *The Book of Daniel*, Torch Bible Commentary, London: SCM, 1956.
- Keil, C. F. & Delitzsch, F. *Ezekiel, Daniel, IX*,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n Ten Volumes, Eerdmans: Grand Rapids, Michigan, 1976.
- Lacocque, Andre, *Daniel in His Tim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88.
- Lacocque, Andre, *The Book of Daniel*, D. Pellauer, trans., Atlanta: John Knox, 1979.
- Lucas, Earnest C., *Daniel, Apollo Old Testament*, Apollos: Leicester, England, 2002.
- Porteous, Norman W. *Danie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5.
- Redditt, Paul L., *Daniel*,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Sheffield: Sheffield Press, 1999.
- Seow, C. L., *Daniel*,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 Wills, Lawrence M., *The Jew in the Court of the Foreign King*, Minneapolis: Fortress, 1990.

<초록>

다니엘서 4장 27절의 번역에 관한 연구

배정훈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다니엘서 4장 27절은 자선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속하라는 본문이 아니다. 두 개의 단어인 프루크(פְּרוּק)와 치드카(חֲדַקָּה)를 옆두에 둘 때 이 본문은 다음과 같이 번역해야 한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없애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없애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단 4:27) 치드카(חֲדַקָּה)는 후대에 칠십인역, 카톨릭, 유대교에서와 같이 자선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본문의 문맥에 적절하지 않다. 이는 구약성서에서 왕에게 요구되는 덕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왕이 아니라 이방 왕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진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를 요청받는다. 예언자들의 경고 앞에서 재앙이 오기 전에 주어진 기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시로 왕이 공의를 행하기를 요청하는 것과 같다. 프루크(פְּרוּק)가 “사하다”라고 칠십인역에서 번역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단어를 칠십인역 번역자는 카파르처럼 “사하다”라고 번역함으로 실제로는 제사장적인 구속을 뜻하게 만들었다. 이 단어는 많은 용례를 따라 “죄를 없애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권고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질책이 아니다. 포로 시기에 세계를 다스리는 바벨론 왕에게 권세를 부여하시면서 왕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이다. 즉, 하나님은 왕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가 유다의 신인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기를 요청한다. 왕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며 왕을 폐하기도 하시는 분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박했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고백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왕은 이 권세를 빼앗겨 페위-포로의 시기를 겪게 되는 것이다.

<Abstract>

The Study on the Translation of Dan 4:27

Prof. Chong-Hun Pa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Dan 4:27 should not be translated as “Redeem your sins by good deeds.” Considering two words such as pürùq(פִּרְק) and cidqâ(צִדְקָה), this verse should be translated as follows: “Break off your sins with righteousness, and your iniquities with mercy to the oppressed.” It is not proper in this context to interpret cidqâ(צִדְקָה) as good deeds as translated in the LXX, the Latin Vulgate, and the Tanak in the late period. The cidqâ(צִדְקָה) is demanded of the Israelite kings in the Old Testament. Nebuchadnezzar has a responsibility to practice righteousness not as one who has a covenantal relation with God, but as one who should have the right kingly identity as a foreign king. It is not right to interpret pürùq(פִּרְק) as “redeem” as translated in the LXX. The translator of the LXX translate the Aramaic word “pürùq(פִּרְק)” as “to redeem”, which means priestly redemption. According to various usages, this word should be translated as “break off.”

Daniel’s counsel is not a warning against a king who has a covenantal relation with God. God gave Nebuchadnezzar the authority to govern the world and Nebuchadnezzar has a responsi-

bility to have a right identity as a king who knows “God sets up kings and deposes kings.” Under his arrogance, he is about to bring about catastrophe. He should break off his sins with righteousness and his iniquities with mercy to the oppressed. If not, he will be deposed and should endure his period of exile for seven times.